

자원재활용 환경교육

송정은(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I. 서 론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지구환경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한 민주적인 학습과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여 4가지 분야별 도시환경(생활환경, 자연환경, 도시공간환경, 사회·경제환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12개의 영역별로 비전과 기본목표, 실천과제를 설정한 '대전의제21'의 작성과 집행, 실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대전광역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기초가 되는 의제, 즉 실천과제 중 생활환경분야의 「①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한다. ②재활용 상품개발을 요구하고 이용한다. ③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배출한다.」를 실천하기 위해 자원재활용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I. 본 론

1. 자원재활용 환경교육 실시 사업 내용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는 대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기본목표 및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자원 재활용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활동하였다.

대전시민들의 자원재활용 환경교육을 위하여 「양심화분 만들기, 재활용품 생필품으로 교환하기,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지구판 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하기, 실천서약 받기, 거리캠페인, 쓰레기 없는 대전 만들기 환경모니터링 · 시민, 기관대상 교육, 시민벼룩시장」 등 여러 사업을 2004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1) 찾아가는 현장 교육

자원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및 분리방법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 내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자 중 대시민 교육을 실시할 만한 강사를 선발하여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 역량을 강화시켜 각종 지역 내 모임이나 동아리 단체 등의 활동, 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대시민 교육을 실시

한다.

2) 체험 학습 교육

재활용품을 생필품으로 교환,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여러 사업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자원재활용의 필요성 인식을 고취시키고 재활용의 실천율을 높여 폐기물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한다.

3) 행사성 캠페인

대전 시민들에게 대전의제21을 알리고,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리캠페인이나 실천서약에 성명을 받아 실천을 다짐받는다.

2. 세부사업내용

자원재활용 환경교육은 크게 ‘찾아가는 현장교육, 체험 학습교육, 행사성 캠페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시민들에게 직접 대전의제21추진 협의회가 다가가 자원재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으로는 쓰레기 자원화 교육, 시민벼룩시장, 양심화분 만들기가 있다.

두 번째, 체험 학습교육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을 알고, 대전지역의 현상황을 파악하여 자원재활용 교육내용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지구판 만들기, 환경 모니터링, 지구사랑 실천하는 실천왕을 찾아라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행사성 캠페인은 재활용 생필품 교환하기, 시민실천서약 받기, 거리캠페인으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를 찾아 실천함을 다짐받았다.

1) 찾아가는 현장교육

① 쓰레기 자원화 교육

지역 사회 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실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으로, 목적은 시민들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율을 높이고, 적정한 자원화 과정을 거쳐 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4월 17일 대전노은중학교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23기관, 1,650여명을 교육하였다.

② 시민벼룩시장

시민 참여형 벼룩시장을 통해 재활용 관련 단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

기적으로 벼룩시장을 개최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이점을 느끼고, 실천하게 하며 단체가 개최하는 것 보다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확산시키고, 자원순환운동의 상승을 가져와 나아가 벼룩시장을 하나의 문화코드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③ 양심화분 만들기

관광서와 개인으로부터 양심화분 설치 신청을 받아 50여개의 양심화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지역 내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놓아 지역민들의 불법투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2) 체험학습교육

①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지구판 만들기

지구판을 만들어 육지와 바다를 분류하여 각각 병든 지구를 위해 시민 자신의 할일을 적어 붙여봄으로써 맑고 깨끗한 지구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② 환경 모니터링

연인원 100여명의 대학생환경모니터단에 대한 교육 및 역할로서 대전광역시 전역 78개 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배출 실태를 매주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5년 5월부터 실시하여 10월까지 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대전광역시의 배출되는 쓰레기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쓰레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데이터자료를 마련하였다.

③ 지구사랑 실천하는 실천왕을 찾아라.

청소년들에게 대전의제21에 대한 관심과 대전의제21의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실천과제를 담은 책자를 배포하여 방학기간에 실천 노트를 작성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상식과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3) 행사성 캠페인

① 재활용품 생필품 교환하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일정량 이상 가져와 유기농 먹을거리와 환경상품으로 교환, 가장 쉽고 재미있게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② 시민실천서약 받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원재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설정한 분야별 각 실천목록을 나눠주고 시민들의 서명을 직접 받았다.

③ 거리캠페인

대전시내 으능정이 거리에서 대전의제21 리플렛과 스티커를 배부하고,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의 실천과제 소개 및 실천약속을 위한 서명을 유도하여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알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실천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3. 기대효과 및 성과

자원재활용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여 대전지역의 폐기물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인 활동을 제시하여 정책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넘어 주민들과 함께 실천 가능한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체험과 행사를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다짐을 통해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며, 실천프로그램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폐기물정책을 현실 속에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III. 결론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실시한 자원재활용 환경교육으로 「양심화분 만들기, 재활용품 생필품으로 교환하기,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지구판 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하기, 의제실천과제 따른 실천서약 받기, 거리캠페인, 쓰레기 없는 대전 만들기 환경모니터링 · 시민, 기관대상 교육, 시민벼룩시장」 등을 연차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시민들이 직접 교육 받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원재활용 환경교육이 일회적, 전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시민들의 '지구지키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고취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자원재활용 환경교육이 대전지역의 모든 시민참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